

〈소현성록〉 연작의 ‘사위’ 형상화 연구*

정선희**

〈차 례〉

1. 서론
2. 가족 구도 속 처가와 사위의 관계 양상
3. 〈소현성록〉 연작에서 사위 형상화의 의미 -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17세기 후반의 국문장편소설 〈소현성록〉 연작의 사위의 형상에 주목하여, 가족 구도 속에서 처가와 사위의 관계를 네 가지로 나누어 그 양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탐구하였다. 〈소현성록〉 연작은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초기 장편소설의 면모와 사대부 계층의 독서 상황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국문장편소설사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므로 연구 성과가 풍부하지만 인물에 관한 논의는 부부관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기존의 연구에서 소홀했던 남성 인물 중 하나인 ‘사위’의 형상화를 고찰함으로써 사위와 처가의 관계, 사위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 사위가 느끼는 처가의 분위기 등에 대해 논하였다. 가문이나 가족이 사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것이다. 처가의 다른 인물과의 관계도 안에서의 사위의 위상이 드러나 있으므로 이를 세밀하게 분석함과 동시에 그 의미를 탐구하려 하였다. 특히 장인, 장모, 다른 사위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외되거나 인정받거나, 반대로, 사위가 처가를 무시하거나 동렬의 다른 사위를 무시하는 경우들을 고찰하였다.

그런데 처가와 사위간의 관계가 좋으면 부부 관계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이에서 고통 받는 것이 아내 즉 딸이었다. 남편과 처가와외의 갈등의 희생양은 거의 여성이었다. 특히 소운성은 호걸형 남성인물형인데, 자신의 호기를 표출하면서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홍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아내들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였다. 한편, 사위 가문의 구성원을 악한 사람 또는 열등한 사람으로 설정하거나 사위 자체를 흠 있는 사람으로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김현 같은 경우이다.

요컨대, <소현성록> 연작에서의 '사위'관련 서사는 가문이나 가족 구도 안에서의 위상을 반영하는 면이 크고, 그에 따른 영향은 여성인물인 아내들이 주로 받았으며, 관련되는 갈등과 해소를 통해 작품의 재미와 활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내었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작품인 <소현성록>이나 18세기 작품인 <조씨삼대록>에서 사위 혹은 사위의 가족들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면서 무시 받는 양상이 주로 펼쳐지는 것과 다르게, 후대의 작품들에서는 사위보다는 장인 혹은 장모 등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또 <완월회맹연>에서는 고집불통 사위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위의 유형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인들이 이상적이라고 여길 만한 사위상이 등장한 것과는 다르게, <소현성록>에서는 이상적 사위상이 소략하게 다루어졌다. 중심가문이 완벽하므로 사위에 기대하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어서인 듯하다. 이러한 모습은 시대에 따른 변화 양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소현성록>에서 사위의 모습 특히 김현의 모습이나 딸 수빙에 대한 친정 식구들의 도움은 서류부가혼의 잔존 형태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 <소현성록>, 국문장편소설, 사위, 소외, 부부관계, 가족 관계

1. 서론

이 논문에서는 17세기 후반의 국문장편소설 <소현성록> 연작의 사위의 형상에 주목하여, 가족 구도 속에서 처가와 사위의 관계를 네 가지로 나누어 그 양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국문장편 고전소설은 중심 가문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는데, 등장인물의 수가 많기에 관계를 파악하거나 갈등을 분석함으로써 작품 전체의

주제나 서술자의 지향을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인물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 특히 주인공이나 악인에 대한 연구는 각 작품마다 두세 편씩 보고되고 있다. 〈소현성록〉의 소현성, 소운성, 양부인, 석부인, 석파에 대한 연구,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 진공, 설초벽에 대한 연구, 〈조씨삼대록〉과 〈임씨삼대록〉의 군주들, 〈임씨삼대록〉의 여성인물들, 임관홍에 대한 연구, 〈완월회맹연〉의 정인광, 소교완에 대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 인물 간의 관계 연구는 주로 부부관계를 다루었는데 부부 간의 갈등 양상, 갈등의 원인, 폭력적 행태 등이 고찰되었다. 최근에는 부자관계를 탐구하거나 이를 모자관계와 비교하는 연구, 고부관계를 살피는 연구 등이 시도되었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소현성록〉연작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초기 장편소설의 면모와 사대부 계층의 독서 상황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소현성록〉연작은 〈소현성록〉과 〈소씨삼대록〉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이 작품은 국문장편소설사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므로 연구 성과도 풍부하지만 인물에 관한 논의는 부부관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국문장편 고전소설에 관해 ‘여성’을 핵심적 키워드로 삼은 연구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성 인물에 관한 논의는 주로 ‘아내’로서의 형상화 방식 탐구에 초점이 있었고, 최근에는 여성의 가족 내적 위상이라든지, 여성에게 요구된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과 더불어 여성 향유층의 심리 등을 추출한 연구들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성’을 핵심적 키워드로 삼거나 남성 인물에 관한 논의는 생각보다 적다. 이데올로기나 주제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남성 인물이 언급되거나 분석되곤 하지만, 인물 연구나 관계 연구로서의 남성 인물 연구는 다소 소략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소홀했던 남성 인물 중 하나인 ‘사위’의 형상화를 고찰함으로써 사위와 처가의 관계, 사위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 사위가 느끼는 처가의 분위기 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가문이나

가족이 사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려는 것이다.

‘사위’는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가문에 새로 편입된 사람이기에 은근히 소외되거나 무시되기도 하며, 못나거나 문란한 인물로 그려지곤 한다. 그럼으로써 자기 가문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딸의 자질이나 품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반면에 사위가 뛰어나면 변변치 못한 자기 집안을 일으켜 세울 줄 구세주이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기대만큼 실망이 커서 사위를 박대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그간 국문장편소설에서의 사위 연구는 주로 혼사장애담이나 용서대립담을 다루면서 진행되었다. <명주기봉>과 <옥원재합기연>에서 불인한 장인과 도리를 다하려는 사위가 대립하고 이 때문에 부부가 불화하다가 화해하는 양상¹⁾, <명주기봉>, <옥원재합기연>, <창란호연록>, <양현문직절기>에서 소인형 장인과 사위의 갈등 때문에 딸인 여주인공들이 고통을 당하여 한(恨)이 발산, 승화, 체념, 응축되는 양상²⁾, <유효공선행록>, <옥원전해>에서 주인공의 아버지가 소인형이어서 그의 비행을 거론하는 장인과 갈등을 일으키고 부부가 불화하다가 장인이 용서를 빚으로써 사위와 화해하는 양상³⁾ 등이 연구되었다. 최근에는 <완월회맹연>의 용서관계를 분석하면서 특히 어리석은 장인과 고집 센 사위에 주목하거나⁴⁾,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다양한 사위의 유형을 고찰하면서 당대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

1)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2) 한길연,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용서대립담 연구 - 여주인공의 입장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5, 2003, 27~64쪽.

3) 조광국, 「<유효공선행록>과 <옥원전해>의 용서대립담 고찰」, 『고전문학연구』 36, 2009, 165~188쪽.

4) 한정미, 「어리석은 장인의 사위 바라기와 고집불통 사위의 장인 밀어내기-〈완월회맹연〉의 용서」, 『고전서사문학에 나타난 가족』, 보고사, 2017, 199~246쪽.

던 사위상을 추론하기도 하였다.⁵⁾

이들에서는 주로 장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을 연구하였는데, 본고의 연구 대상인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장인뿐만 아니라 처가의 다른 인물과의 전체 관계도 안에서의 사위의 위상이 드러나 있으므로 이를 세밀하게 분석함과 동시에 그 의미를 탐구하려 한다. 특히 장인, 장모, 다른 사위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외되거나 인정받거나, 반대로, 사위가 처가를 무시하거나 동렬의 다른 사위를 무시하는 경우들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⁶⁾

2. 가족 구도 속 처가와 사위의 관계 양상

1) 처가에서 인정받는 사위

〈소현성록〉의 주인공 소현성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인물이기에 처가에서도 인정받는 사위이다. 첫째 부인인 화씨 집안에서도 그러했고, 둘째 부인인 석씨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석씨의 어머니 진씨는 딸의 혼인 전에 소현성이 화씨와 혼인하는 날 현성을 보고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다. 이후에 석과가 석씨를 현성의 둘째 부인으로 추천하자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비록 재취이지만 현성의 인품이나 학식을 높게 평가하여 사위 삼기를 바란다. 오히려 현성이 재취 삼는 것이 외람되다고 거절하니 팔왕이 직접

5) 탁원정, 「국문장편소설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다양한 사위 유형과 그 의미」, 『이화어문논집』 55, 이화어문학회, 2021, 5~27쪽.

6) 최근에 구비설화에서의 사위와 처가의 관계 양상에 따라 사위의 유형을 나누어 살핀 연구(전주희, 「사위 관련 설화 연구」, 『구비문학연구』 58, 2020.)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처가를 욕보이는 사위, 처가에 득이 되는 사위, 처가로부터 덕을 보는 사위로 유형을 분류하여 사위의 영향력이나 지위를 주로 논하였다. 즉 혼인의 과정에서부터 사위되기, 사위노릇하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비해 고전소설에서는 혼인한 뒤에 처가를 어떻게 대하는가, 처가에서 사위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서술이 많으므로 본고에서는 이에 초점을 맞춘다.

권유하여 혼사가 이루어진다.⁷⁾

혼인 후에도 현성의 늠름한 정신과 서리 같은 골격이 이름 난 군자와 같아 늘 흐뭇해한다. 첫째 부인인 화씨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특히 장모인 설부인이 사위를 믿고 잘 대하는데, 현성도 설부인을 공경하여 마음에 결정하지 못한 바나 다른 이들에게 보고들은 것을 전하기도 하면서 대화를 나눈다. 다음은 소현성과 장인, 장모의 관계 양상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수레를 돌려 화씨 집으로 나아가니, 평장은 없고 화생 등만 있었다. 들어가 설부인에게 뵈오니, 설씨가 새로이 다행스러워하고 기뻐하며 먼 길에 무사히 돌아옴을 하례하였다. 성찬(盛饌)을 갖추어 정성껏 대우하니, 참정이 사례하고 친근하게 말씀하는 것이 석씨 집의 진부인에게보다 더하였다. 이는 그가 어려서부터 의지하였던, 조강지처(糟糠之妻)의 어머니인데다 원래 설부인이 매우 현숙하여 그 딸과 다르고 사람됨이 성녀(聖女)에 가까워 참정이 친근하게 여기고 흠모함이 더하되 공경함도 한가지였다.

장인도 둘을 두었는데, 석공은 공경하고 높이며 화공은 공손히 대접하지만 석공께 미치지 못하니, 그 각각 사람의 됄됨이에 따라 대접하는 것이었다. 화씨는 모친이 어질고 석씨는 부친이 어지니, 대략 화공은 천성이 매우 정직하지만 위엄이 없고 진부인은 이름답지만 성품이 편협하였다. 소상서가 비록 밖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 우열을 이미 밝게 알고 있었다. 또 걸음로는 한결같이 공경하지만 오직 화공과 진부인을 대하면 안부인사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석공과 설부인을 대하면 혹 마음에 결정하지 못한 바와 타인이 보고들은 것도 전하며 허다한 말씀을 그치지 않았다.

하루는 설부인이 술을 권하지 않으니, 화생이 웃으며 말하였다. “어머니는 왜 축하주 한 잔을 소형에게 권하지 않으십니까?”

설부인이 웃으며 말하였다. “어진 사위의 몸가짐이 바른 군자여서 내가 감히 돕거나 가르칠 것이 없다. 남자가 술 먹는 것이 예사이지만 술은 곧 사람을 미치

7) <소현성록> 2권 39~40쪽.

게 하는 약이다. 하물며 사위는 한 잔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기에 만약 술을 권하여 취하면, 두렵기는 수행하는 것을 잊어버릴까 하는 것이다.”

소참정이 사례하여 말하였다. “장모님이 저의 마음을 밝게 하시며 정대하게 가르치시니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석양에 하직하고 자운산에 돌아왔다.⁸⁾

화씨의 아버지는 화평장, 어머니는 설부인, 석씨의 아버지는 석공, 어머니는 진부인이며, 참정이라 호칭되는 것이 소현성이다. 현성은 장인 중에서는 석공과, 장모 중에서는 설부인과 더 친근하고 그들을 더 공경한다. 네 사람이 모두 사위를 아끼고 인정하지만 이렇게 사람됨에 따라 관계 양상과 막역한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소씨 가문의 큰 사위인 한상서도 처가에서 인정받는 사위이다. 사위가 젊었을 때에 딸을 박대하였지만 뭐라 하지 않고 늘 고마워하면서 겸손하게 대하여 함부로 하지 않았다. 소현성의 딸 수주의 남편 인종도 처가에서 인정받는 사위이다.

2) 처가에서 무시 받는 사위

〈소현성록〉에서는 소씨 가문 중심주의가 보이는 대목들이 있는데, 딸과 며느리, 아들과 사위의 위상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소현성의 딸 수빙의 남편 김현의 경우, 처가에서 무시 받는다고 할 만하다. 원래 김현은 소현성을 아버지같이 섬기고 승상도 현을 자식이나 조카처럼 대했으며, 특히 현성의 아들 운현과 절친한 친구 사이이다. 그런데 어느 날 운현을 만나러 집에 왔다가 숙모 월영이 수빙을 그린 그림을 보고 반하여 상사병이 난다. 그를 가엽게 여긴 승상이 혼인을 허락하여 혼인을 하게 되지만 어머니 설부인은 그가 너무 한미한 가문이어서 걱정을 많이 한다.⁹⁾

8) 〈소현성록〉 4권 12~13쪽.

김현과 수빙의 혼인은 그다지 흔쾌히 한 것도 아니고 가문의 세력도 크게 차이가 나서인지 김현은 혼인하는 날부터 처남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 아무리 누이가 연약하더라도 신랑에게 합방을 하지 말고 다른 방에서 자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여기서는 그에게 수빙이 피곤해하니 조리하도록 나가서 자라고 하는 등 여동생만 챙기는 오빠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운성이 혼자 못 들은 채 하며 웃음을 머금고 소저에게 편히 누워 쉬고 앉아 있지 말라고 하였다. 이때 갑자기 김생이 들어오니 소저가 일어서고 모든 생들은 다 움직이지 않았다. 생이 자리에 앉자 운성이 쩡그렸던 미간을 펴고 웃으면서 말했다.

“그대의 간절한 뜻이 금석(金石)같으니 우리들이 감격하였고 아버님께서도 연약한 동생으로 하여금 그대의 뜻을 밟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예가 아닌데도 억지로 한 혼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는 구구하게 후히 해주

- 9) 승상이 비록 의리와 신의를 지켜 딸아이를 결혼시켰으며 신랑의 풍모와 태도를 사랑하였지만 마음속으로 즐겁지는 않았다. 힘이 빠져 좋아하는 기운도 없이 딸아이를 나오라고 하여 가르치며 말하였다. “너는 모름지기 시택에 가서 군자를 섬기되 삼가고 조심하여 밤낮으로 명령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해라.”

소저가 두 번 절하며 명을 받으니 석부인이 드디어 길게 탄식하고 의지에서 내려서서 걸음을 움직여 소저의 곁으로 갔다. 금비녀를 빼서 소저의 귀밑머리를 쓸어주고 예쁜 눈썹을 그려주었다. 그 후 화관을 바르게 해 주고 칠보백옥(七寶白玉) 띠를 띄워주고 향주머니를 매어주며 타일렀다. “네가 모름지기 군자를 섬김에 있어 유순하고 씩씩하게 하며 시부모를 효성으로 섬기고 동열(同列)을 공경하며 교만한 뜻을 두지 말라. 또한 마음을 굳게 하며 늘 경계하여 주야로 궁한 일이 없도록 하여라. 만일 우리의 가르침을 듣지 않아서 욕이 부모에게까지 미치면 자식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공자가 말씀하기를 자식이 어질어서 빛난 이름이 부모에게 들리면 이것이 곧 효도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어가는 어머니를 위해 다리 살을 베어 먹여 살릴 정도로 공경을 하여도 불효라고 하였으니 너는 삼가 조심하고 맑은 덕을 두루 행하여 집안의 명성을 더럽히지 말거라. 그리고 시집이 불편해도 원망하거나 호화한 내 집을 생각하지 말고 서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전하지 마라.”

소저가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며 하직하는데, 부인이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참으면서 안쓰러운 빛을 두지 않은 채 두 번 세 번 위로하고 시녀 네 명을 팔려 보내니.

〈소현성록〉 12권 122~124쪽.

지 말고 다만 업신여기거나 앉았으면 합니다. 내 누이가 본래 어려서부터 병이 많았는데 오늘 혼례(婚禮)를 지내고 기운을 수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대는 마땅히 나가서 자고 연약한 누이가 조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는 두 시녀와 유모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소저를 조심하여 편히 모셔라.” 말을 마치고 모든 생들이 서로 웃으며 말하였다.¹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가니 합방을 하기는 했지만 김현으로서는 당황스럽고 기분이 상할 수 있었을 듯하다. 이후 수빙이 현의 형 김환과 시어머니 왕부인에게 꺾박을 당한 뒤 쫓겨 돌아왔을 때에도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집에서 살라하거나, 김환을 유배 보내는 데에 적극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등 딸, 여동생 위주로 사태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사위가 자기 형을 조금은 배려해 달라, 형벌을 멈추게 해달라고 애원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아 서운해 한다. 아내의 오빠 즉 운성이 김환을 잡아다 매질도 했다는 것을 안 김현이 화를 내고 이에 응답하는 운성의 대화 장면이다.

어사(御使) 김현이 갑자기 화를 내며 말하였다.

“그대들이 위세를 바탕으로 일반 선비의 무리를 업신여기지만 그대의 할아버님도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였습니다. 내 형의 곡직(曲直)은 말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선비의 몸인데 어찌 셋째형이 마음대로 잡아다가 매를 칠 수 있습니까?”

병부상서 운성이 매우 화가 나서 원숭이 같은 팔을 뻗어 어사의 소매를 잡으며 말하였다.

“그대는 소년유아(少年幼兒)인지라 식견이 천박하군. 내가 이유도 없이 그대의 형을 친 것이 아니다. 심술과 행실이 칠만 하기에 내가 도찰원(都察院)으로 잡아다가 풍문을 깨우쳐 준 것인데 그대가 어찌 화를 내면서 망령되게 할아버님을 예로 드는가?”

10) 〈소현성록〉 12권 129~130쪽.

어사가 소매를 뿌리치고 얼굴색을 변하며 말하였다. (중략)

어사가 꾸짖으며 말하였다.

“내가 처음에 아름다움을 흠모하여 그대의 여동생을 얻긴 했지만 내가 잘못 했다고 늘 후회했다. 그대가 그대의 누이를 믿고 나를 압도하려 하더니 빨리 혼서(婚書)를 가져오십시오. 파혼하고 돌아가야겠습니다. 내가 겁낼 줄 압니까?”

운성이 말했다.

“내가 원래부터 누이를 그대의 두 번째 부인으로 준 것을 몹시 원통하게 생각하여 파혼하고 싶어 했으니, 그대 말대로 할 것이다. 그대의 혼서(婚書)를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시녀를 불러 혼서를 내어오라고 하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¹¹⁾

김현이 어사로 파견 간 사이에 운성이 형을 매질했냐고 따지면서 위세 있는 가문이라고 일반 선비를 업신여겨 힘으로 잡아다 형벌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이런 식이라면 뒷날 권력을 전횡하다가 왕망이나 동탁처럼 황제의 권력도 빼앗아 정권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비난한다. 이에 맞서 운성이 너의 형이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아서 귀양 보낸 것이고 법대로 집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왜 원망하느냐고 답한다. 그러자 현은 아내의 없는 흠을 만들어 내고 혼인도 후회한다고 막말을 하게 되고, 이에 운성은 파혼시키겠다면서 혼서지를 내어 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황이 격하게 돌아가자 운경과 운현 등이 말리고 아버지 승상을 보게 하여 겨우 분위기를 돌린다. 김현은 자기가 형 대신 귀양을 가겠으니 홀어머니를 생각해서 용서해 달라고 애원한다. 승상이 다시 한 번 경계한 뒤 김환을 풀어주기로 하여 상황이 마무리된다.

김현이 소수빙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 중에 “..... 소씨 형제의 기세가 등등하여 나 같은 일개 선비는 쩌 죽일 듯하였기

11) <소현성록> 12권 60~63쪽.

에 감히 그대를 찾지 못했습니다.”¹²⁾라고 하는 데에서도 그의 위축,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계속하여 수빙이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자 장인에게 타일러 달라고 하지만 장인도 악한 너의 형이 있으니 딸을 보내지 못하겠다고 한다. 놀라서 주춤하다가 어머니와 상의한 끝에 소씨 집안으로 들어가 살기로 한다. 시댁 식구들이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딸이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하거나, 사위가 처가 옆으로 옮겨가 살게 되는 일은 흔치 않다.

수빙과 김현, 즉 딸과 사위가 친정 옆에 집을 얻어 살게 된 후에는 오빠들이 누이를 위해 재물을 내놓고 월급을 떼어 주기도 하여 재물을 쌓아놓을 데가 없을 정도가 된다. 어머니와 숙모들도 재화와 비단 등을 소저에게 주며, 운성은 자신의 식읍에서 나오는 것의 반을 누이에게 주니 풍요로움이 공주보다 더했다고 한다. 이러던 차에 사위의 어머니가 자기도 함께 가서 살겠다고 하니 사위는 구차하게 생각될까 염려하여 주저하지만 결국에는 함께 가서 살게 된다. 이들은 그 집의 규모와 위세가 크고 현란하여 낮이 나갈 정도가 되지만, 이후에는 소저가 시어머니 봉양을 잘하여 화목하게 산다. 하지만 사위의 형이 어머니와 동생을 만나러 오는 것을 막으니 비밀스럽게 왔다가는 등 기를 못 편다.

3) 처가를 무시하는 사위

〈소현성록〉의 주인공 소현성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처가에서 인정받는 사위이지만 처가를 무시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사위이기도 하다는 면에서 이중적이다.

이내 석씨가 간통했다고 믿고서는 친정으로 쫓아내는 대목이 있는데, 석씨가 잘못이 없고 모해를 입어 그렇게 된 것을 아는 친정 식구들은 매우

12) 〈소현성록〉 13권 70~71쪽.

억울해하고 불쾌해 한다. 특히 석씨의 외조부인 석장군은 손녀를 쫓아낸 소현성을 죽이겠다고 화를 내면서 자운산 소씨 집안으로 와서 칼을 빼들고 살기(殺氣)를 보인다. 그러나 이를 본 소현성은 전혀 주눅 들거나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위풍당당하게 말을 받는다. 왜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 드느냐, 자기가 서생이고 어리지만 같은 조정의 신하이니 이렇게 겁주지 말라, 장군이 공훈이 있지만 자기가 그 휘하에 있지 않으니 해치려 하지 말라고 차갑게 말한다.

그런데 이런 반응에 석장군은 ‘그 강렬하고 정직한 것에 탄복하여 칼을 버리고 기운을 잃고’ 탄식하면서 소현성의 손을 잡고 등을 두드리며 웃고 사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음과 같지 않게 칼부터 들어 무례했음을 뉘우친다고 하는데, 이를 들은 소현성의 대답은, 자신이 장군을 가볍게 본 것이 아니다, 빨리 깨달으시니 천만 다행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나치게 당당하고 차갑게 대하여도 이런 태도가 전혀 부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위엄 있고 강직한 모습이라고 칭찬을 받는다. 석장군은 석씨를 만나 소현성을 칭찬하고, 석씨는 할아버지가 너무 쉽게 노하여서 현성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 것에 놀랐다고 하고 마무리된다.¹³⁾

소현성이 석씨를 내친 일에 대해서는 정작 묻지도 못하고 일단락되는데다가 이후에도 친정 식구들은 소현성을 조정에서 만나도 따지지 못한다. 소현성이 장인 석참정을 보면 엄숙하게 대하니 장인은 마음속으로만 노할 뿐이다. 이후, 몇 달이 지나 석씨가 친정에서 아들을 낳았어도 현성이 찾지 않을 분위기인 것을 알고 나서야, 석참정은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냐고 화를 낸다. 하지만 이 때에도 따로 말하지 못하고 또 너댓 달이 지난다. 어느 날 조회에 참석한 뒤 길에서 소현성을 만난 참정이 함께 집으로 가자고 하여 와서는, 진작 오지 못하여 죄송하다고 하지만, 참정이 말을 하려 하니

13) <소현성록> 3권 28~30쪽.

그 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일어서면서 노모가 평안치 못해 오래 있지 못한
다고 하고는 가버린다.¹⁴⁾

그 뒤 석씨가 잘못하지 않았음이 드러나자 어머니 양부인이 현성에게
석씨를 데리고 오라고 하니 겨우 혼서와 채단을 다시 만들어 석씨 가문에
보내고 나서 간다. 그런데 장인이 매우 노하여 왜 여태껏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느냐며 부끄럽지 않느냐고 하자, 다음과 같이 답한다.

“상공의 말씀을 들으니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제가 비록 간사한 사람에게 속
았으나 일찍이 자식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내치지는 않았습시다. 그런데 오늘
상공 말씀으로 보건대, 제가 화락하여 부자유친(父子有親)과 부부유별(夫婦有
別)을 온전하게 하려던 뜻이 사라져 부끄러우니, 이 부끄러움을 억지로 참고
인연을 잇는 일은 할 수 없습시다. 하물며 상공의 말씀으로 미루어본다면 석씨
를 구박할 때에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은 말이 있으니 또한 의심이 일어나 아
이가 정말로 내 자식인 줄 모르겠습시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처치하십시오.
저는 본디 무식하니 상서로 녹을 먹는 것이 진실로 부끄럽습시다.”¹⁵⁾

자신은 잘못된 일이 없으며, 오늘 장인의 이런 말을 들으니 자기가 아내
와 화락하고 아들과 부자유친의 관계를 회복하려 한 것이 오히려 부끄럽다
고 하면서 바로 일어나 가려 한다. 장인의 말에 뉘우치기는커녕 그 말을
비꼬고 정색을 하면서 가려 하는 것은, 크게 화를 내지만 않았지 매우 불손
한 태도이다. 그러자 참정이 더욱 노하였지만 석씨를 데려올까 묻는데 이
번에도 장인 탓을 하면서 “석공이 노하여 하니, 아직 그대로 두십시오.”¹⁶⁾
라고 하고는 가버린다.

이렇게 절대 자신의 오해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소현성 때문에 결국에

14) 〈소현성록〉 3권 51쪽.

15) 〈소현성록〉 3권 54쪽.

16) 〈소현성록〉 3권 54쪽.

는 왕족인 팔왕이 동원되고 나서야 장인과 사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석씨도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때에도 팔왕은, 소현성은 잘못이 없고 요망한 아내인 여씨가 잘못이니 석공이 현성에게 노하여 하지 말고 모두 털어버리라고 한다. 이에 참정이 사위를 가볍게 대접한 게 아니라 딸을 구박했던 것을 원망한 것이었다며 앞으로는 마음에 두지 않겠다고 한다.

칠왕과 팔왕이 술을 권하여 취하게 된 현성을 석씨 처소에 데리고 가 부부는 오랜만에 잠시 다시 만나게 되고 다음 날 돌아간다. 돌아간 뒤 오한이 들고 병이 나 간호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고 그를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석씨가 시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런데 이때에도 석참정이 딸을 보내지 않는 것을, 서술자는 그의 성품이 고집스러워 한번 우기면 천 사람이 권해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집요함이 있다고 한다. 작품의 주된 서사가 소현성 위주로 흘러가고 그는 성인군자이며 전혀 흠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되고 있기에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판단 앞에서도 그를 탓하지 않고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처가를 무시하는 또 한 명의 사위는 운성이다. 소현성은 그의 엄위한 태도가 은근히 처가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정도였지만, 소운성은 더 심하게 처가를 무시한다. 둘째 부인인 명현공주의 아버지 즉 태종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면서 처가를 무시하는 것이다. 공주와의 혼인을 강하게 거부하다가 아버지까지 삭탈관직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등 수모를 당한 후에 어쩔 수 없이 혼인하게 된 터라 더욱 반발심이 큰 듯하다. 특히 첫 아내인 형씨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서는 그렇게 만든 공주에게 이를 갈면서 평생 즐기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는데¹⁷⁾, 이렇게 아내를 좋아하지 않기에 처가에 대한 반감도 크다. 공주가 ‘임금과 동생을 죽이려 한 가문에서 자랐으니’¹⁸⁾ 멀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태종이 태조와 자

17) <소현성록> 6권 32쪽.

18) <소현성록> 6권 36쪽.

기의 동생 정미(廷美)를 죽이려 한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주는 다르게 생각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니 운성은 격분하면서 따지고 둘의 감정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운성은 첫째 부인인 형씨의 가문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형씨가 운성의 애정과 공주의 시기를 피하려고 죽었다고 연극했음을 알게 되자 장인을 비난하며 비꼴다.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그럴 수 있는 반응에서 넘어, 형씨의 혼서지를 주고 개가하게 하는 게 낫겠다면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장인이 화를 내며 왜 이렇게 방자하냐고 꾸짖어도 ‘크게 웃고 말하거나’ ‘차게 웃으며 말한다.’ 돌아가라고 계속 말해도 듣지 않다가 칼을 꺼내 처자를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위협하다가 장인이 막으니 겨우 진정하고 화를 푼다.¹⁹⁾

4) 동렬에게 무시 받는 사위

운성의 아내 형씨의 언니의 남편인 ‘손기’는 동렬에게 무시 받는 사위이다. 동렬인 운성에게 무시 받는 것이니, 운성은 처가를 무시하는 사위이기도 하면서, 동렬을 무시하는 사위이기도 하다.

손기는 형참정의 맏사위인데 사람됨이 변변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인사 말도 하지 못한 사람으로 소개된다.²⁰⁾ 그는 자기의 못남을 알기에 부끄러워하는데 특히 운성의 성격을 알기에 피해 다닌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운성이 그에 대해 묻자 형씨가 그를 호탕하고 시원하며 처사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장인도 그를 감싸면서 문장을 잘 쓴다고 하면서 침착하고 정직한 점을 사랑한다고 하니 약간 노여워하면서 우습게 여긴다.²¹⁾

그러던 중 형참정이 아들과 사위를 데리고 변하에서 뱃놀이를 하기로

19) 〈소현성록〉 8권 10~12쪽.

20) 〈소현성록〉 9권 61~62쪽.

21) 〈소현성록〉 9권 63~65쪽.

한다. 운성은 손기가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불참한다고 말해 놓고 갑자기 참석하는데, 이에 당황한 손기는 허둥지둥하며 피할 곳을 찾다가 장인 뒤에 서서 눈만 동그랗고 뜨고 서 있다. 손아래 동서인 운성이 인사를 해도 답할 바를 알지 못하니, 운성은 그가 공손하고 조심하는 덕이 있다고 비꼰다. 운성은 또 그에게 80여 세가 넘는 듯한 모습이라며 공경한다고 놀리기도 한다. 25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손기는 운성이 때리거나 꾸짖지 않는 게 황공하여 머리를 숙이며 아무 답도 하지 않는다.²²⁾ 이름을 몰으니 ‘송기’라고 하여 책을 잡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 참선하냐는 놀림을 당한다. 급기야 형씨 형제들이 그만 놀리라고 하는 데도 운성은 계속하여 그를 비웃는다. 장인이 칭찬했던 것을 비꼬는데, 조용하고 침착하여 장인의 뜻에 맞는 사랑스런 사위라며 장인은 저 같은 성인을 얻었으니 자기는 경박하고 무례하다고 나무라는 것이라고 한다.

운성이 시 짓기 내기를 하자고 제안하자 손생은 안색이 흠뻑과 같아지면 서 안절부절 못한다. 그래도 운성은 손생에게 굳이 시를 지으라고 보치는데, 손생이 짓지 못하고 있다가 형생이 초고를 대신 써서 내주자 벌칙으로 물 스무 그릇을 마시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계속하여 놀리자 손생은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울고 만다. 그러자 운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더 놀린다.

“천지의 조화가 손생에게 치우쳐 평범한 사람보다 특출하네. 소리는 미친 개 같고, 용모는 굶주린 말 같구나. 풍채는 잎 떨어진 나무 같고, 재주는 남의 글 도적질하네. 사람으로 하는 일 중에는 거짓말을 잘 하니 과연 영웅이구나. 그러니 장인어른이 칭찬하지 않으시겠는가?

더욱 모든 것 중에서 이상한 곡성을 내니 친척이 돌아가신 슬픔이 생긴 것이 아니냐? 놀랍구나. 형이 점복(占卜)을 신기하게 해서 집에서 친척이 뜻밖

22) <소현성록> 9권 71쪽.

에 죽은 줄 알고 이리 우는 것이 아니냐? 알지 못하겠구나. 어떤 사람이 죽었는
고? 아직 탄식하는 것을 천천히 하고 급히 알아오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죽고 사는 것이 어둠과 밝음 같은 것이니 설마 어찌 하겠는가? 너무 슬퍼하지
마라.”²³⁾

소리와 용모 모두 이상하고, 글도 못 쓰고 거짓말까지 하니 영웅이라고
하면서 그러니 장인어른이 칭찬하는 거라고 비꼰다. 우는 소리가 곡성 같
다면서 더욱 놀리니 손생이 더 크게 울고, 장인은 어쩔 수 없어 자기 아들
들만 꾸짖으며 정색하고 있을 뿐이다. 장인이 사위를 크게 나무라지는 못
하는 것이다. 이런 장인에게 운성은 “장인은 사랑하는 사위와 함께 즐기시
고 미운 사위인 운성 때문에 불편해 하지 마십시오. 다만 평소에 손생을
매우 칭찬하시기에 소문을 높이 듣고 보고자 한 것입니다만 몹시 낮아 보
입니다.”라고 하고는 가 버린다.

운성은 이렇게 손위 동서에게도 장인에게도 불손하기 그지없는 행동을
하는데, 이에 대해 누가 꾸짖지 못한다. 손생을 한심해 하거나, 운성이 당연
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양해해 준다. 손생의 아내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손생은 이후에 운성을 피해 다닐 뿐이다. 운성은 여동생 소수빙의 남편 김
현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던 것을 앞 절에서 보았다. 이렇게 사위가
무시 받는 서사를 독자들이 좋은 눈으로만 본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손기
를 도가적 영웅으로 설정한 〈영이록〉이 파생작으로 지어진다.

3. 〈소현성록〉에서 사위 형상화의 의미 -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소현성록〉연작에서 사위가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가족구

23) 〈소현성록〉 9권 75~76쪽.

도 속에서의 관계양상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다. 처가에서 인정받는 사위가 있는가 하면, 무시 받는 사위가 있었고, 반대로 처가를 무시하는 사위도 있었다. 동서지간인 다른 사위에게 무시 받는 사위도 있어서 다채로운 양상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처가와 사위간의 관계가 좋으면 부부 관계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이에서 고통 받는 것이 아내 즉 딸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처가와외의 갈등의 희생양이 거의 여성인 것이다. 처가를 무시하는 사위 소운성은 아내 명현공주를 소외시키면서 갈등을 심화시켰고, 소현성은 다른 면에서는 성인군자이지만 아내 석씨를 내칠 때에는 아내의 할아버지에게조차 뺨뺨하고 차갑게 대하면서 화합하려 하지 않았다. 아내가 모함을 받아 애매한 누명을 쓴 것인데도 의심하면서 처가 식구들을 냉대하는 것이다. 〈완월회맹연〉에서 정인광이 장인 장현에 대한 반감으로 아내 장성완을 냉대하고 자결하라고 명령하기까지 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장현은 소인형 장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인 것에 비해, 석씨 가문의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데도 소현성이 은근히 무시하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운성의 장인은 적어도 운성에게는 부도덕한 행실을 한 사람이라고 평가되므로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소운성이나 정인광은 호걸형 남성인물형인데, 자신의 호기를 이렇게 표출하면서 아내들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소운성은 그 호기를 손윗동서인 손기나 손아래 동서인 김현에게도 부린다. 뱃놀이 중에 시 짓기 내기를 하자고 하여 글을 잘 못 짓는 손기를 놀리고, 혼인날에 여동생을 위한다고 신랑 김현에게 다른 방에서 자라고 하는 등 다른 사위들이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한다. 이러한 장면들은 운성의 호기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으면서 잔잔한 서사에 재미를 주는 요인, 윤희유로 작용한다고 할 수도 있다. 〈소현성록〉은 대체로 가정 내의 이야기, 화목하고 정적인 면이 두드러지므로 운성 관련 서사에서 갈등을 만들고 동적인 면들을 가미

하여 활력을 넣은 것이다. 이런 역할은 아들 중 운성과 운명이 주로 담당하는데, 운성은 호걸스러운 기질에서 나오는 행동들로, 운명은 감정적이고 애정을 중시하는 기질에서 나오는 행동들로 채워진다.

반대로 사위가 처가에서 무시 받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소수빙의 남편 김현이었는데, 그는 자기 가문이 아내의 가문보다 위상이 낮기에 그러하기도 했지만 가족들의 부도덕함이 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형과 어머니가 아내를 이유 없이 박해하다 내쫓기까지 하니 소씨 가문에서는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여 딸 수빙을 돌려보내지 않는다. 형 김환을 유배 보내는 데에 운성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도 한다. 나중에 화해를 한 뒤에는 처가인 소씨 가문 옆에 집을 지어 살게 하는데, 시어머니도 같이 와서 사는 등 수빙 위주의 삶으로 바뀐다. 이는 가문 간의 위상 차이로 인한 부부간 위상 설정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소씨 가문의 위세 때문에 김현은 숙일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수빙은 당당하게 살 수 있었다. 소수빙이 시댁 식구들에게 겸손하려 하기는 하지만, 남편의 말이 맞지 않으면 굽힘없이 의견을 피력하고 늘 당당한 태도를 보이니 김현은 자신을 ‘어린 사나이로 알잡아 보며 방자하니 부끄럽다’²⁴⁾고 느낀다. 오빠들이 적극 두둔해 주고 해결사 노릇을 하며 아껴 주었기에 친정 옆에 살 수 있었다.²⁵⁾

이렇게 사위 가문의 구성원을 악한 사람 또는 열등한 사람으로 설정하거나 사위 자체를 흠 있는 사람으로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씨삼대록〉에서 조월염의 남편 양인광을 들 수 있다. 전편인 〈현몽쌍룡기〉에서 죽은 패륜아 양세의 아들 인광을 후편인 〈조씨삼대록〉의 중요 인물로 등장시킨다. 인광이 조씨 가문의 가장 빼어난 딸 월염의 남편이 되는 것인데, 인광이 아버지와는 달리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혼사가 성사되기는 했지만 흠이 있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현몽쌍룡기〉와 〈조씨삼대록〉은 연작이기

24) 〈소현성록〉 13권 121쪽.

25) 〈소현성록〉 13권 115~116쪽.

에 연계되는 면이 있는데, 이런 설정도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현몽쌍룡기>의 주인공 조성의 아내 양부인의 가문 즉 ‘며느리 가문’에 악인 양세를 설정해 놓은 것이고, <조씨삼대록>의 여성 주인공 중 하나인 월염의 남편 양인광 즉 ‘사위 가문’을 그 악인의 후손으로 설정한 것이다. 중심 가문의 인물들은 칭찬만 받게 하면서 그 가문의 주변 인물들을 활용해 작품의 갈등과 재미를 만들어간 것이다. 월염은 현철하고 빼어나 아버지 조무가 아끼는 딸이다. 따라서 작품의 갈등 조성과 재미를 위해서 월염의 남편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하여, 여색에 미혹되기도 하고 나쁜 아내의 말에 속아 월염을 박대하게도 한 것이다.

동렬에게 무시 받는 사위 손기는 <영이록>이라는 작품에서 도가적 영웅으로 재탄생하는데, <소현성록>에서 운성에게 놀림 받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느낀 독자가 파생작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말이 어눌하고 글도 못 지으며 소심하고 자신감 없던 인물을 신선 같은 소양을 지닌 영웅적 인물로 만들어내 운성이 꿈쩍 못하게 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요컨대, <소현성록> 연작의 ‘사위’ 관련 서사는 가문이나 가족 구도 안에서 서의 위상을 반영하는 면이 크고, 그에 따른 영향은 여성인물인 아내들이 주로 받았으며, 관련되는 갈등과 해소를 통해 작품의 재미와 활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7세기 작품인 <소현성록>이나 18세기 작품인 <조씨삼대록>에서 사위 혹은 사위의 가족들이 우습거나 부정적으로 그려지면서 무시 받는 양상이 주로 펼쳐지는 것과 다르게, 후대의 작품들에서는 사위보다는 장인 혹은 장모 등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또 <완월회맹연>에서는 고집불통 사위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위의 유형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인들이 이상적이라고 여길 만한 사위상이 등장한 것과는 다르게, <소현성록>에서는 월염의 남편 한상서 정도를 이상적 사위상이라 할 만하며 그마저 소략하게 다루어진다. 중심가문이 완벽하므로 사위에 기대하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어서인 듯하다. 이러한 모습은 시대에 따른 변화 양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듯하다. 〈소현성록〉에서 사위의 모습 특히 김현의 모습이나 딸 수빙에 대한 친정 식구들의 도움은 아직까지도 서류부가혼의 잔존 형태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사위가 가까이에 살고 있고 딸이 중시되기에 그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소현성록〉·〈소씨삼대록〉 15권 15책, 이화여대 소장, 각 120쪽 내외.
정선희·조혜란·최수현·허순우 역주, 『소현성록』 1~4권, 소명출판, 2010, 각 400쪽 내외.
- 김문희, 「국문장편소설의 묘사담론 연구」, 『서강인문논총』 28, 서강대 인문과 학연구소, 2010, 5~41쪽.
- 김준형, 「가족의 의미망을 통해 본 야담」,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2007, 133~163쪽.
-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05, 1~502쪽.
-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4, 1~250쪽.
- 박은정, 「『소운성』을 통해 본 〈소현성록〉의 성장소설적 성격」, 『어문학』 108, 한국어문학회, 2010, 53~86쪽.
-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1~308쪽.
-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 외 역,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4, 1~312쪽.
- 윤승준, 「기대와 실망, 팔시와 보복의 서사 - 구전설화 속 처가와 사위의 관계」, 『한민족문화학회』 37, 한민족문화학회, 2011, 65~98쪽.
- 이숙인, 「유학의 가족사상」,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2007, 31~64쪽.
- 이지영, 「설화에 나타난 가족관계와 갈등양상」,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2007, 197~219쪽.
- 이지하, 「〈소현성록〉의 이중성에 내재된 욕망의 실체」, 『반교어문연구』 40, 반교어문학회, 2015, 237~269쪽.
- 전주희, 「사위 관련 설화 연구 - 사위와 처가의 관계, 이야기의 통과의례적 성격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58, 한국구비문학학회, 2020, 245~298쪽.
- 정선희, 「17세기 후반 국문장편소설의 딸 형상화와 의미 - 〈소현성록〉연작을 중심으로」, 『배달말』 45, 배달말학회, 2009, 425~459쪽.
- 정선희, 「영웅호걸형 가장(家長)의 시원」,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153~185쪽.
- 정선희,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인물론과 생활문화』, 보고서, 2012, 1~336쪽.
- 정제호, 「〈낙성비룡〉의 변별적 성격과 그 연원」, 『고소설연구』 37, 한국고소설학회, 2014, 205~228쪽.

- 조광국, 「〈유효공선행록〉과 〈옥원전해〉의 응서대립담 고찰」, 『고전문학연구』 36, 한국고전문학회, 2009, 165~188쪽.
- 최수현, 「〈현몽쌍룡기〉에 나타난 친정/처가의 형상화 방식」, 『고전여성문학연구』 1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327~364쪽.
- 탁원정, 「국문장편소설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다양한 사위 유형과 그 의미」, 『이화어문논집』 55, 이화어문학회, 2021, 5~27쪽.
- 한길연,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응서대립담 연구 - 여주인공의 입장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275~315쪽.
-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정인광 - 폭력적 가부장의 ‘가면’과 그 ‘이면」,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27~64쪽.
- 한정미, 「어리석은 장인의 사위 바라기와 고집불통 사위의 장인 밀어내기-〈완월회맹연〉의 응서」, 『고전서사문학에 나타난 가족』, 보고서, 2017, 199~246쪽.
- 허순우, 「현실적 문제 제기와 낭만적 해결법의 모색 - 〈영이록〉의 작품 성격 재고찰」, 『한국고전연구』 2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269~306쪽.

ABSTRACT

The study on figuration of the son-in-law in
the series *Sohyeonseong-rok*

Jeung, Sun-hee

This study focuses on figuration of the son-in-law in the series of Korean full-length novels *Sohyeonseong-rok* of the late 17th century, divi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laws and son-in-law in the family composition into four categories, and explored their respective meanings.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cases where the son-in-law is alienated from or welcomed in relationships with the father-in-law, mother-in-law, and other sons-in-law, or where the son-in-law ignores his in-laws or the other sons-in-law.

The son-in-law, like the daughter-in-law, as a new family member is often secretly alienated or ignored, and is often portrayed as an ugly or promiscuous person. By doing so, the family members attempt to reveal the superiority of their family and highlight their daughter's qualities and personality. However, i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n-in-law and his in-laws is good, the marital relationship is good, but if not, it was the daughter, or the wife, who experienced suffering, being caught between her family and spouse. The victim of the conflict between husband and in-laws was often a woman. In particular, So Woon-seong is an overconfident male character who acted violently against his wives. Meanwhile, there are cases where members of the son-in-law's family are presented as evil or inferior people, or the son-in-law himself is presented as a negative character, such as in the case of Kim Hyun.

In short, the narratives related to the "son-in-law" in Korean-style novels, including *Sohyeonseong-rok*, reflect the status of sons-in-law in the family or family composition, and the influence mainly impacted their wives, and the related conflicts and resolution strengthened the fun and vitality of the work.

Key Words

Sahyeonseong-rok, Korean full-length novel, son-in-law, alienation, marital relationship

논문투고일	: 2022.04.09.
심사완료일	: 2022.05.02.
게재확정일	: 2022.05.02.